

# 오색연등 아래서 축구로 한마음된 천진불심

## 5월 23일 제1회 포교원장배 동자승 축구대회

“스님~ 그쪽으로 공차시면 안돼요~. 골대는 이쪽이에요.”  
 “스님~ 공을 손으로 잡으시면 어떡해요. 발로만 차셔야죠.”  
 스님들과 신도들이 대웅전 앞에 둥글게 모여 “아이고 스님~” “안돼요” “얼른 뛰세요”를 연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1주일 앞둔 5월 23일 오후 2시 오색 연등이 수놓아진 조계사 앞마당. 스님들이 절에서 웬 축구를 할까 참배하러 온 신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가 봉축을 맞아 동자승 간의 친목과 우애를 다지고 사찰 간 교류 확대 및 불교포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1회 포교원장배 동자승 축구대회’ 자리다. 머리를 뺨뺨 깎은 동자승들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이 별경게 달아 오른 채 조계사 앞마당을 열심히 뛰어다녔다. 응원하는 신도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는 동자승들이 마냥 귀여운지 입가에는 연신 미

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조계사 팀에 참가한 혜호 스님(5)은 “에이 우리 팀이 1등할 줄 알았는데, 경기가 저서 기분이 안 좋아요”라며 격한 감정을 토로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어 흥법사 2팀과 대구불교총연합회의 경기는 1대 0으로 흥법사 2팀이 이겼다.  
 이어 열린 대구불교총연합회와 조계사는 순위를 정하는 승부차기 끝에 조계사가 5대 3으로 이겨 4위를 차지했다.  
 예선 뒤 곧바로 준결승이 이어졌다. 준결승에는 부전승으로 올라온 신흥사와 흥법사 1팀의 경기가 진행됐다. 신흥사는 경기시작 2분 만에 골을 넣으며 경기를 리드해 갔다. 결국 경기는 3대 0으로 신흥사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잠시 휴식 후, 신흥사와 흥법사 2팀의 경기가 있었다. 경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동자승들은 지친모습이 역력했다. 부상자들도 속출했다. 경기 도중 선수 교체가 계속 이뤄졌다. 하지만 동자승들은 가쁜 숨



5월 23일 조계사 앞마당서 조계사, 신흥사, 대구불교총연합회, 흥법사 등 4개 사찰팀이 참가한 '제1회 포교원장배 동자승 축구대회'가 열렸다. 신흥사와 흥법사 2팀이 결승전 경기를 하는 모습. 신흥사팀이 흥법사팀을 2:0으로 꺾고 우승했다.

어슬픈 동자승들 플레이에  
 조계사 앞마당은 웃음바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신도들 응원열기 뜨거워

경기 진행될수록 부상자 속출  
 경기초반 흥법사 선전에도 불구하고  
 체력좋은 신흥사 축구팀 우승  
 축구화도 없이 멋진 경기 펼쳐

소가 끊이지 않았다. 부모님 앞에 어리광이나 피울 나이에 자신의 몸집만한 범벅을 입고 공을 이리저리 차는 모습은 단연 이날 조계사에서 큰 화제였다.  
 이번 대회는 동자승 단기출가를 마련한 서울 조계사, 대구불교총연합회, 속초 신흥사, 부산 흥법사 등 총 4개 사찰서 37명의 동자승이 참가했다. 경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각 팀 5명의 선수가 전·후반 10분씩 경기를 했다.  
 첫 경기는 흥법사 1팀과 조계사 경기. 흥법사는 이날 참가팀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해 2개 팀으로 나눠 출전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각 팀 후보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을 꽉 쥐 채 목청껏 응원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심판의 휘슬이 들리자 동자승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며 공 쫓기에 바빴다. 그렇게 경기 시작 후 5분이 지나자 드디어 골이 터졌다. 흥법사의 자살골이었다. 경기를 지켜본 신도들은 배를 움켜잡고 웃어댔다. 1대 0으로 이겨 나가기 시작한 조계사 쪽에서 오히려 신이 났다.  
 잠시 후 후반전이 시작되자 동자승들도 경기에 어느 정도 적응했는지 골키퍼도 제자리를 찾고, 전반전보다 안정된 모습이였다. 자살골을 만회하듯 흥법사는 후반 3분에 골을 넣어 동점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어 5분이 지나 한 골을 더 추가해 흥법사팀은 준

을 내쉬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하나가 되는 돈독한 자리였다.  
 드디어 후반 10분이 지나며 양 팀 모두 치열한 접전 끝에 신흥사가 결국 흥법사 2팀을 2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서 가장 활약이 돋보인 신흥사 명진 스님(6)은 지친기색 없이 “축구가 정말 재밌어요. 더 뭘 수 있는 힘이 있는데...”라며 “우리 절 신흥사가 우승해 기분이 정말 좋아요”라고 싱글벙글 했다.  
 신흥사에게 아깝게 패하고만 흥법사 등진 스님(5)은 “계속 연달아 경기를 하니 너무 힘들어요”라며 “열심히 운동해서 다음에는 꼭 우승할 거예요”라고 외치며 아쉬움을 달랬다.  
 신흥사 팀 명진 스님의 어머니 김미숙 씨(37)는 “축구연습도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축구화도 없이 경기를 해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동자 스님들이 예상외로 멋진 경기를 보여줘 정말 기쁘다”며 “공기 좋은 속초 설악산에서 지내서 인지 스님들이 체력이 좋아졌다. 이번 점이 축구 경기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흥법사 동자승들을 지도한 이재재 씨(38)는 “이번 경기를 위해 전문 축구강사 선생님을 초청해 연습



포교원 어린이 청소년 위원장 송묵 스님이 신흥사팀에게 우승컵을 수여하고 있다.



조계사에 참배하러 온 신도들이 동자승들의 축구경기에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했다. 참가에 의의를 두고 왔지만 우승을 눈앞에서 놓치니 아쉽다.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연히 조계사에 들러 경기를 관람한 한금옥 씨(65)는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동자승들이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천진난만한 동자승들의 경기를 보니 부처님의 가피를

얻은 듯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인솔담당자인 보리월(법명) 동화사부설 동원어린이집 원장은 “행사가 동자승들의 우애를 다지고 사찰 교류 확대를 위한 자리인 만큼 행사 전 각 사찰의 동자승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템플스테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권민희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팀장은 “축구는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동자승관련 행사를 통해 2015년까지 동자승 단기출가 참여 사찰을 20개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글=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hallo@hyunbul.com

###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상산화계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범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범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랑 호령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f x 34m

아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f x 34m

육각초 7.0f x 34

연화 대 9.5f x 11m, 연화 중 9f x 10m, 연화 소 7f x 6.5m

밀납연화 소 7f x 6.5m

**New 꽃과 나비**

3x6연꽃나비A, 3x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와카바, 후리지야, 영원향 장, 단(소바라)

우리향, 백단향, 설송애, 인삼향, 대발향, 속향

백목향, 목향, 향수림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